

單大가을 행사 줄이어 「학술세미나」는 푸대접 받아

단대인들의 대동단결을 위한 각종 단대별 가을행사가 지난달 19일 야간강좌부 주최「아하제」를 시작으로 교내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다.

인문대학

「제3회 진양제전」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진양터를 비롯한 인문대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인문대학생회(회장:김형정·국문 4) 주최로 열린 이번 축제제의 첫날인 25일에는 「성자별」을 통해 본 여성의 재발견에 대한 세미나와 김남이, 고사, 진양 5종경기, 불꽃마당 등의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29일까지 사회학과 「제5회 진의제」가 열렸으며, 독문학과 「제8회 독문학과 세계」가 29일과 30일, 일문학과 「제7회 파랑제」가 29일, 사학과 「청사정문제」가 4일부터 5일, 영문학과 「제9회 Helicon 축제」가 4일부터 7일까지 각종 학술세미나, 시낭송, 음악발표, 연극 등의 행사가 차례로 진행됐다.

법정대학

법정대학생회(회장:이창언·법 3) 주최 「제2회 한라청담제」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2동 중앙당과 야외음악당 두곳에서 개최됐다.

2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법정의 밤」, 「생음악 경연대회」가 야외음악당에서 열렸으며, 26일에는 「법정장기왕전」이 2319강의실에서, 「제주지역 개발의 문제점」이란 주제의 세미나가 2동 중앙당에서 있었다. 한편, 27일에는 「한국대통령의 정책결정과 전문관료의 역할」에 대한 초청강연(연사:정성길교수·서울대), 행정학과 주최 「모의의회」가 2동 중앙당에서 열리는 등 「제11회 법안제」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졌다.

사범대학

「89사범대동제」가 사범대학생회(회장:송시우·상교 4) 주최로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3동 배움터를 비롯 교내 일원에서 열렸다.

행사첫날인 20일에는 전야제 행사로 김남이 마당극공연이 있었고 21일에는 모의수업발표회와 초청강연 22일과 23일에는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축구배구(남·여) 줄다리기 족구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 경기에서 사회교육과가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특별행사로 「참·자주·

실천하는 여학생을 위한 마당터」가 열려 비디오프로젝션 기획자본 제작이 있었으며 「89사대학생회 투쟁사건」이 3동 배움터에서 열린것을 비롯 지난 29일과 30일 양일간 과학교육과 물리전공주최 「제7회 물리학 축제」이 3동실습실 및 2동 중앙당에서 열렸다.

경상대학

「제3회 씨움제」가 경상대학생회(회장:김성태·회계 3) 주최로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씨움광장 등지에서 열렸다.

26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문화대 「터울림」 노래발표회, 숲놀이, 줄다리기 등이 진행됐고, 27일에는 경영학과 주최의 「경영인의 밤」이, 28일 「모의주주총회」(회계학과), 29일 학술세미나(관공경영학과), 시사토론회(경제학과) 등이 있었다.

공과대학

공과대학생회(회장:김영호·기관공 3) 주최 「제1회 여울제」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야외음악당과 7동로비에서 개최됐다.

첫날인 27일에는 식전행사로 김남이, 날뽀기가 있었고, 학과대항 가요제를 비롯한 공대인의 밤이 야외음악당에서 펼쳐졌다.

28일에는 춘곡과 통일열원 달리기대회, 아카데미즈프롬이 열렸다. 또한, 학과별 행사로는 식품전시회(식품공학과)가 27일부터 29일까지 7동 2층 세미나실에서, 통신기기전시회(통신공학과)가 27일부터 28일까지 있었다.

자연과학대학

「제1회 연광축전」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자연과학대학생회(회장:박여삼·생물 4) 주최로 9동과 야외음악당 등지에서 개최됐다. 자연인의 단합과 친선을 도

모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28일 김트기를 시작으로 민속 5종경기 있었고, 전야제 행사로 「민의소리」노래발표와 연광가요제, 숨비소리초청공연, 장작불놀이 등이 있었고, 29일에는 절개그림 그리기와 춘곡경연이 있었다.

한편, 28일과 29일 양일간 여학생회 주최 「지점토 공예」가 9106강의실에서 있었고, 문화대 「민의소리」주관으로 숲놀이와 제기차기 등의 민속놀이와 야외음악당에서 펼쳐졌다.

야간강좌부

야간강좌부 개설 11주년 기념 「제4회 아하제」가 야간강좌부학생회(회장:김성보·법 3) 주최로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야외음악당을 비롯한 교내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첫날 전야제를 시작으로 20일 동아리 「국악·라비」가 이어령 원작 「세번은 짧게 세번은 길게」를 2회에 걸쳐 공연했고, 「제주도 지역문제」를 주제로한 초청강연(연사:趙敏倫교수·사회), 21일에는 2120강의실에서 「학장기정발 탁구선수권 대회」가 개인·단체전으로 나누어 열렸으며, 22일에는 마당놀이 연구회 「나·너·드」의 창작극 「개발코지」가 음악발에서 공연됐다. 한편, 학과별 행사로는 경영학과 「경영학인의 밤」, 회계학과 「경영학인의 밤」, 행정학과 「학인의 밤」을 위하여, 법학연구회의 「교내 M·T」가 있었다.

고대홍학우 석방 집행유예로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되었던 고대홍(국문·4) 학우가 지난달 30일 석방됐다. 제주시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崔熙慶부장판사)는 29일 오후 1시 2호법정에서 고대홍 학우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라체전 18일 개막

총장기정발 「'89 추계아라체전」이 총학생회(회장:권한태·행정·국문 4) 주최로 대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야외음악당 등지에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이번 체전에는 축구를 비롯, 남·여배구, 8백마혼성계주, 줄다리기, 단축마라톤, 씨름, 여자탁구 등이 경기종목으로 채택됐다.



◇「師道」의 수난시대

24일저녁 사범대 師道像 정면에 부착된 「사도헌장」판이 물리적 손괴에 의해 부서진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과연 이 시대에는 존경받는 스승도 없고 신뢰받는 선도자도 없는가. 「제자를 사랑하고, 개성을 존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명망한 학풍을 조성한다」라는 「사도헌장」내용을 무색케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복학생협의회 建設推 출범

회보및 취업정보지 발간 복학생 이익대변등 다짐

「제주대학교 총학생협의회」의 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김광호·과공 3) (이하 복건추) 출범식이 지난달 26일 50여명의 학우가 참석한 가운데 민주광장에서 있었다.

각단체 복건추 위원장 소개, 결집과정 경과보고, 「복학생협의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라는 취지설명, 복학생협의회의 규약안등 순으로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서 복건추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직까지는 2천 복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복원이 건설되어 복학생들의 권리를 찾고, 의견이나 요구를 적극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복건추는 복원건설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출범선언문을 통해 「그동안 우리 복학생들의 특수한 상황을 대변하고 우리들의 이해에 기반한 사업들을 수행할 기구가 없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우리 복학생들의 정당한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총학생협의회를 건설해 나가며 학원의 민주화 더 나아가 민족의 자주화, 민족통일의 실현을 위해 일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복건추는 월별 회보 발간, 복학생에 대한 설문조사, 학생

회 사업에 대한 주제적 참여, 기타 취업정보 발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복건추는 89년도초부터 일부 복학생들을 중심으로 예비모임이 이루어지다가 2월 실무진

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는데, 복건추의 실무진은 기획총무부, 편집·학술부, 선전홍보부, 조직부, 취업정보부, 인권복지부로 구성돼 있다.

출발하트방

지방 3류대학이라는 오명 씻을 길 없다

한번 해아려 보자. 지난 9월 우리가 강의실에 앉아 제대로 강의를 받아본 날이 며칠이나 되는지.

아마 모르는 게 해도 달력의 반을 다 못채운 학과가 태반일 것이다. 개강이 된 후 일주일간은 무조건 휴강이라는 인식이 학생들에게 박힌지 오래이고, 그 다음에는 개강파티, M·T로 이어지는 어수선한 분위기, 어느정도 학습분위기 조성되어 마땅한 놀자판이 캠퍼스 곳곳에서 아무 거리낌없이 벌어지고있을 뿐이다.

무엇, 축제란 「경사를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를 이르는 말이라는 데 도대체 우리에게 축하할 무슨 경사가 있어 큰 보름동안이나 학교를 떠돌게하게 만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 다.

중간고사 10일부터

제2학기 학사일정에 따른 중간고사 일정을 보면 10월13일 이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각학과 학년별로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교무처에서 일괄 시험일정을 공고해 왔던 시험제도와는 달리

각학과 담당교수제에 따라 교양 및 전공과목별로 실시되며, 정당한 사유로 인해 시험에 응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추가 시험도 담당교수 재량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칙 제27조인 「중간고사를 응시하지 아니한 학생은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88년 학칙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배드민턴팀도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博士학위취득

지난 8월중에 본교에 재직 중인 교수 2명이 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학위 논제와 학위취득대학은 아래와 같다.

△梁永洙교수 (영문·부교수)
△梁永洙교수 (영문·부교수)



△46년 제주출생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P.H. Lawrence의 계층의식과 Sleeping Beauty Motif」

△柳基中교수 (동화·부교수)



△53년 경북출생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대우 Propopla의 세로변 재생에 대한 Benzyl adenine에의 영향」

중간고사로 인해 10월15일자 신문은 휴간하고, 25일 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濟大의 산 歷史요 證人인 濟大新聞 影印本판매



濟大新聞은 本校의 조급대학식절부터 오늘의 아라캠퍼스가 있기까지 本校가 걸어온 숭한 試練의 발자취와 변천사를 保存하고 있는 우리大學歷史의 山記録입니다.

1954년 濟大新聞 창간호부터 87년 8월까지 발간된 新聞의 全號를 한데 묶은 이 축세 영인본을 구입해 보실 독자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한후 本社로 구입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축세 영인본 내용 및 크기

크기: 22cm×31cm×P644

내용: 제1권(1954년~1977년)

제2권(1978년~1987년)

●판매가격: 원당 2만원

●신청기간: 1989년 11월 30일까지

●연 락 처: 본사 업무국

☎ 23-6141~50 (교)262, 269

(夜)23-6156

濟大新聞社

社説

教養과 思索

4년은 결코 긴 세월이 아니다

대학의 사명은 眞理探究와 지도자적 人格形成이라는 두 개의 기능이 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진리탐구라고 하는 당위적 측면에 너무 비중을 두는 나머지 지도자적 인격형성이라는 대학의 또 하나의 使命을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 後者는 前者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대학 생활이야말로 학생들로 하여금 확실한 主體性을 확립하고, 寬容精神과 개방된 心情을 익히며 자기의 知識의 상대성과 한계점을 인식하면서 自我를 형성해 나가는 값진 시기이기 때문이다.

대학생활을 통해서 원만한 人格을 형성하는 길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敎養의 증진과 理性에 토대한 思索인 것이다.

敎養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文化理想에 입각, 인간정신을 磨鍊하여 원만한 人格을 배양하는 데에 노력하고 그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自我의 마음밭(心田)을 갈고 가꾸는 것에 다름없다. 이러한 고양의 증진은 知識이 그 바탕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지만 知識이 반드시 敎養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人格과 결부된 지식을 갖춘 사람이 교양인인데 반해 지식을 위한 지식만을 쌓은 사람은 단지 專門家이거나 技術者일 뿐이다.

한편 思索은 자기를 發見하고, 자기를 探究하고, 자기를 省察하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즉 사색의 초점은 주체적 自我와 外界와 확립에 있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人格形成에 결부되는 것이다. 일찍이 「암리·벨그송」은 「思索은 人으로서 행동하고 行動人으로서 사색하라」고 말하였는데 사실, 思索이 없는 行動은 混沌과 방황상실이 되기 쉬운 것이다. 올바른 사색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올바른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현대의 지식인이 빠지기 쉬운 결함으로서 흔히 「意識의 過剩」과 「예지의 貧困」이 지적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색의 부족에서 연유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은 교양과 사색의 중요성을 지적했지만, 이는 人格形成過程에 있는 대학생들이 참된 인간으로서의 自己成長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풍부한 교양을 갖고 합리적인 사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古典으로 자기의 인격형성과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위하여 노력한 先賢者들의 思想에 접하며, 그러한 번뇌와 노력을 體驗하는데 있다고 본다.

이러한 思想에 접하는 지름길은 바로 讀書인 것이다. 讀書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 중에서도 時間과 空間을 초월하여 보편성을 갖고 있는 古典이야말로 교양의 터전이다. 동시에 古典은 우리들에게 事物를 바로 판단하고 거꾸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으로써의 理性을 길러줌으로써 합리적인 思索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믿는다. 이제 가을도 깊어졌다. 흔히 독서의 계절, 사색의 계절이라고 부르는 이 가을에 古典을 통해서 先賢들과 만나고 對話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쁜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9월은 연이여 열일 각 單大別 行事로 2주일 가량이 들른 분위기 속에서 지나가 버렸다. 이 기간중 讀書週間도 있었으나 도서관은 거의 텅비다시피 해 현관에 걸린 빛바랜 현수막이 더욱 공허함을 느끼게 했다. 體育行事로 체력의 향상과 學友간의 우의를 다지는 것도 좋고, 文化行事를 통해 情緒가 함양되고 서로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도 大學文化의 堂標이라는 입장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의 행사를 보며 아쉬웠던 점은 아무리 單大別로 제각각 치르는 행사라고는 하지만 학교전체로 볼 때는 行事期間이 너무 길어 他大學에의 수업시간 등 면학 분위기를 흐리기도 했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행사에는 日程 中の 합리적 조정을 통해 면학분위기와 행사의 내실을 꾀하고 시켜 나가는 지혜가 바라질 일이다. 대학생활 4년은 결코 긴 세월이 아니다. 대학생활이 졸업후의 수 십년을 준비하는 未來管理의 기간인 이상 寸陰을 아껴 면학하고, 敎養의 증진과 이성적 사색의 토대가 되는 古典을 한 권이라도 더 읽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활 4년은 결코 긴 세월이 아니다. 대학생활이 졸업후의 수 십년을 준비하는 未來管理의 기간인 이상 寸陰을 아껴 면학하고, 敎養의 증진과 이성적 사색의 토대가 되는 古典을 한 권이라도 더 읽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자의소리

濟大新報는 제대인이 다함께 만드는 신문입니다. 본지기사, 혹은 학내 제반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니 원고지 5매 이내로 많은 투고 바랍니다.



현길언

민주적인 대학의 총장상

이 글은 「민선총장에 거는 기대」란 주제로 본사에서 청탁했던 원고이나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이번엔 실리게 될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註】

김현욱 선생님, 어찌다가 이 난세에 그 총장이란 거북스러운 직책을 맡으셨습니까?

혹자들은 일평생 대학 교수로서 학문 연구에 몰두하신 선생을 생각한다면, 대학총장이란 것이 영광스런 자리라고 축하를 보낼 것임이 당연한데, 사실 김현욱 선생께서는 그 직책을 결코 명예스럽지 않고 심지어는 길처럼 험난한 자기 회생의 자리임을 저서 생각하셨습니까?

이제는 한 평생 불독과 연구해온 학문을 정리해야 할 중요한 그 시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총장이 되셨으니, 학문을 뒷전으로 밀려두고 큰 도장이나 찍으면서 누가 말하고도 그만도 않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하겠으니, 개인적으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까?

이러한 제 말씀에 오해를 하

실과 사색을 단다면, 학문은 선생의 고유한 영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대신하지 못하지만, 총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종의 행정적 기능이 아닐까. 이 말은 곧, 총장이 결코 대학의 발전을 기하는데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니라는, 총장에 대한 민주적인 인식을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학은 교수와 학생이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갖고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데서 그 발전의 원동력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총장은 그러한 분위기를 잡아 주는 일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소위 요새 사람들이 즐겨 말하는 민주대학이 가능한 것입니다. 철저한<심부름꾼>으로서의 총장, 그것이 오늘 한 국대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데 총장이 할 일이라 감히 생각합니다.

총장이 되면 학문은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소중한 학문을 잃어버리는 아

녀에게 바로 학문이란 것이 버티어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러한 학문을 연구하는 일에 대한 일종의 외경에 가까운 애정과 결혼하듯 있는 대학총장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대학은 너무 많은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그 원인을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있다고 보지만, 그중에서도 대학의 내부적인 요인, 즉 대학의 질적 저하와 교육의 질적 저하가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학의 사회적 지위와 교육의 질적 저하가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에 교수들이 의해서 사정대는 저로서는 총장직을 맡게 되었으니, 더 많은 일을 선생께서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많은 일 중에서 저는 <총장에 대한 민주적인 인식>을 대학인에게 심어주는 일을 강조하여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학이 되면 학문은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소중한 학문을 잃어버리는 아녀에게 바로 학문이란 것이 버티어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러한 학문을 연구하는 일에 대한 일종의 외경에 가까운 애정과 결혼하듯 있는 대학총장직은 의미가 없습니다.

들이 서로 하지 않겠다고 할 때, 아마 한국의 대학은 비로소 대학의 제 면모를 찾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가. 그것이 바로 민주대학 총장의 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디 총장 뿐입니까, 대통령도 하다가 싫다고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물러나는 그 나라를 상상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민주국가 아닙니까.

<한양대 교수·門門>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는 아라인이 되자

요즈음 아라인들이 자존심과 주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몇 자 적는다. 언제부터 최고학부라는 대학의 기본이념이 「제대탑주」가 아닌 「총재와 재전」이 되어 버린 것인가.

그러나 정작 문제삼고 싶은 것은 「공부는 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다. 행사가 끝난 뒷자리가 최고의 지성인들이 앉았던 자리인 것인가를 의심해본다는 점이다. 모락불이 피웠던 장소에는 푸른 잔디밭이 시커멓게 타버렸고 여기저기 김치며, 기타 찌꺼기가 활보(?)하고 있음은 등교하는 학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만약 외부인들이 이런 모습을 본다면 무엇을 느낄 것인가?

우리를 자신의 자존심이 어떻게 깨어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방치해 두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자기 목소리만 내, 자신의 행동만 돌아보는 사회종조가 이 땅을 휘젓고 다녔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성사회 모습을 비판,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할 대학마저 그 속에 합류해 버린다면 과연 대학

의 존재가치는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주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며 학생들이 학문에 전념하는 것 또한 우리의 자존심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을 학우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예연<영문> 1번>

버리는 사람 따로 좁는 사람 따로

지난해부터 대학당국과 학생들은 캠퍼스 정화운동을 계속 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9일에도 동아리연합회와 총학생회는 공동으로 학생회관 뒷구름 대청소를 실시했다.

하지만, 대청소를 실시한지 얼마 안되는 학생회관이 벌써 지저분해지는 등 「제대를 아물 담게 잔디를 푸르게」, 「나라 사람을 학교사람으로 부려, 공공기관을 내 몸과같이 하겠다」라는 등의 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휴지, 담배꽂이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써진 현수막 앞에서 휴지, 담배꽂이를 버리는 것을 예사로 하고 있다.

아라학원들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과연 대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하고 의문을 제기해본다.

분명히 「나」만도 「너」만도 아닌 우리이다. 그러나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좁는 사람, 좁는 사람 앞에서 버림, 을 예사로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함에도 작금에는 우리를 모두의 의식속에 우리들은 이 학교의 스쳐 지나가는 객이라는 인식이 너무나 팽배해 있는것같다.

우리대학의 주인은 우리이다. 아라학의 주인은 아라인 각자 자신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김병성<국문> 2번>

둘째, 수집된 취업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자료의 전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같은 국립지방대학인 경상대학교에서는 취업정보관리와 정확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킴을, 졸업자의 인적사항을 전산관리하고, 각종 취업현황과 각 기업체의 동향현황을 전산화하여 취업추진선 발급이나 행정업무의 능률성 등을 증대시키기 위해 패시밀리와 단말기를 새로이 비치했다고 한다.

우리대학의 주먹구구식 취업활동은 여기에 비하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러므로 우리대학도 취업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자료의 전산화를 시급히 이뤄야 한다.

위에 제시한 대책 외에도 학교당국에서는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별시험에 대비한 특정과목의 특강이나 취업알선 전문기관 및 출신동문과의 유대 강화, 그리고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활동 강화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요즘 기업들이 면접에 더 중점을 두는 바, 외국어회화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어학센터의 설립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김종환이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듯이, 학생들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의 선행, 경주해야 할 것이다.

【박성희 記者】

현장에서

단체별 축제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어느새 2학기가 중반을 넘어섰다.

행사내용들을 보면 축제 때마다 으레 하게 되는 가요제, 노래가사 바퀴부르기 놀이를 비롯, 과의 특성을 살리는 각학과 축제들이 작년부터 더욱 다양하게, 알차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아라인의 고질적인 병폐가 잔존해 있음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된다.

흥미있고 즐길 수 있는 행사나 장터같은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학술행사나 초청강연장에는 을씨년스러울정도로 사람들이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법정대 축제기간에 모화관에서 마련한 서예대 정성길교수의 초청강연이 「대통령의 정책결정과 전문관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 등중강당에서 있었다.

그래서 취재도 하고 강연도 들을걸 중강당으로 발길을 옮겼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다.

그러나 중강당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 생각은 정말 우레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앉을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빈 자리가 너무 많아 어디에 앉아야 할 지를 고민해야 했었다는 것이다.

참여의식

고작해야 2백여명 안팎이 있을 수 있는 중강당을 3분의 1도 못채우고 있었으니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행사를 마련한 그 학과 학생수만 해도 2백명 넘을텐데, 그 학과 학생들의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모여드는 장소는 어디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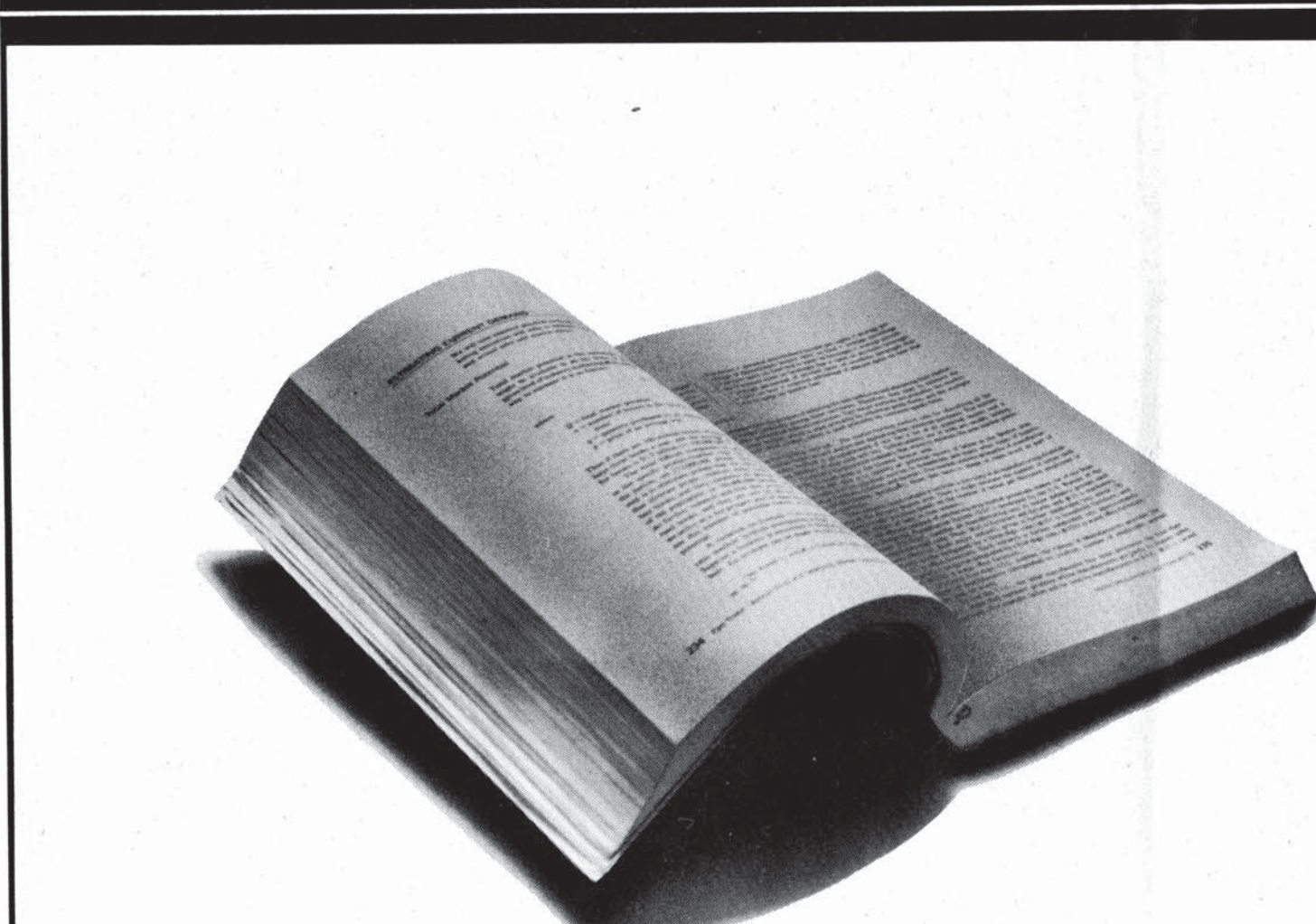
지나친 비약일지는 모르나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당구장으로, 극장으로, 야외로, 또는 좀더 학구열을 불태우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하지는 않았을런지...

축제기간이라 강의도 없을 것이며 그시간엔 야외음악당이나 민주광장에서 별다른 큰 행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 말이다.

아무리 개인적인 청문(?)의 뜻이 있다 해도 우리가 마련한 잔치에 우리가 먼저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음을 학우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繼】

백록학술논문 10월30일 마감



책도 가을의 맑은 공기를 맘껏 마시게 해주세요.

책을 읽다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가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경우가 많습니다. 책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한귀절 때문에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 그동안 덮어두었던 책을 활짝 펼치고 책도 숨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책이 숨쉬며 뿜어대는 신선한 지식을 마음껏 심호흡합시다.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

I.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땅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제동흥산(대표: 류호문·서울남대문로2가118번지).

무엇을 하는 회사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토지를 보유하게 됐는지 최근 들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제동흥산은 어떤 기업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동흥산은 도민들의 공동자산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갈아먹는 기업이라 말할 수 있다.

제동흥산의 부지는 옛날 지도상에 국마장으로 되어 있다. 제주인속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지도를 보면 조선조말까지 해도 그 땅은 국마장으로서 백성들의 땅이었다. 그리고 4·3사건전까지 제동목장 인근 교태리에 있는 6백여호 가구에 사는 주민들이 화전을 일구며 살았다.

제동흥산이 설립된 것은 1972년 3월, 당시이름은주식회사 제동목장이고 창업자는 조중훈 한진그룹회장이다.

조회장은 당시 국내에서 열 손가락안에 들던 화진그룹 박용석씨의 개인소유였던 제주흥업으로 부터 5백만평의 땅을 평당 57원(33원이라고도 함)에 사들였다. (월간지 6월호)

남해주군 조선면 가시리와 북해주군 조천읍 교태리의 경계에 걸쳐 위치한 제동목장이 처음에는 전혀 손길이 없었던 오지로 암석 및 잡목으로 이루어진 야생동물 수렵지로서 땅 한평당 트럭 한대분의 돌을 실어내야 할 정도의 자갈밭이었으나 13년간 1ha당 1천 5백톤(8천톤 약 20대)이상의 돌을 제거하여 현재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제동흥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총 1천 5백28ha이다.

따라서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제동흥산이 본사에서 주입종으로 하고 있는 판산(송이채취), 생수, 항공사업 등이 도민들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II. 항공사업

대한항공은 지난82년 10월16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표선면 가시리 산87의 1번지 2만여평에 공공시설임지 승인을 받아 87년 12월 제동목장내 2만평에 기초현원 비행장을 설치하고, 산하의 한국항공대학 생들에게 비행훈련을 시켰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지난88년 1월 1일에 기존활주로를 길이 9백m, 폭45m로 확장키로 계획을 세우고 부산지방항공관리국으로부터 확장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허가시에는 9백m였던 길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1천 5백m로 확장된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알고 있는 관계자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항공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항공기종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지난해 12월19일에 보인747기와 A-300기 등 대형항공기가 이착륙할수있는 제주국제공항규모의 대형훈련비행장을 제동목장안에 건설키로 하고, 부산지방 항공관리국에 이 사업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신청내용에 따르면 총 공사비 1백80억원을 투입, 1백30만평부지에 2천 5백m의 활주로를 설치한다고 되

특별기획

제주도와 韓進그룹

제동흥산「趙」왕국 건설 전초기지 각종 對民활동, 본도 잠식위한 미소작전

어있다. 현행 항공법은 비행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교통부장관이 당해 비행장의 설치로 인해 타인이 이익을 현저히 해하지 아니할 것을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법시행규칙 제9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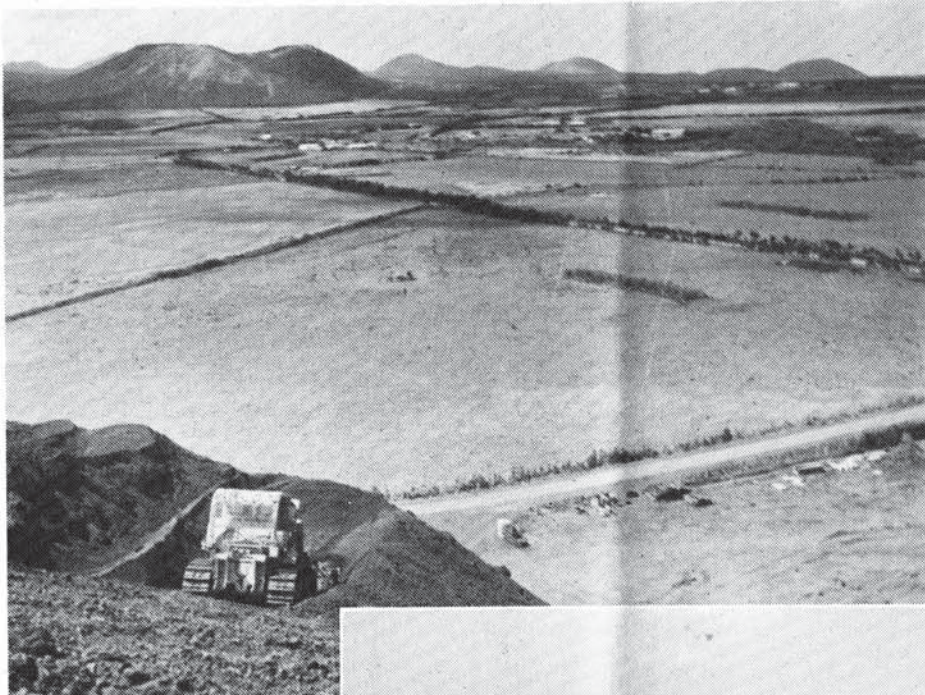
또, 비행장 설치자가 비행장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에 거쳐야 하는 「내용공고」와 「현지계시」를 정하고 있는 것(시행규칙 제9조) 뿐만 아니라 비행장 확장허가는 기본 계획수립 신청전에 환경청에 미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의 거처지도록(환경보전법 제5조)하고있고, 비행장시설 공고에 있을 때에는 활주로 진입주변의 건축물, 식물재배물 등에 불합치를 금하고 있다. 이미 설치된 장애물인 경우는 비행장주권이 소유자에게 장애물제거를 명할수 있는가하면 장애물이 있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할 수도 있는 등 인근주민들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되어 있다(항공법40조).

비행장주권이 항공기 이착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내에 항공장비 등을 설치할수도 있고 토지소유자는 이를 거부할수도 있다(항공법41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공항부지의 원거리까지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고 이 번과 같은 훈련비행장 허가 경우 더욱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항공관리국(국장: 민충호)은 사전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없이 「사전동의서 첨부」라는 단서조항만으로 허가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남군청은 지난88년 12월30일 제동비행훈련원 기공사(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천 4백30평)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설부의 6년전 공공시설임지승인장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주도의 회사내용하나만

을 갖고 기공사건축을 허가한 것으로 행정당국의 부실함을 드러내며 동시에 관과 재벌의 결탁이 아니었는가하는 의혹을 사고있다. 이것만으로도 끝나지않아 기공사 건축허가는 당초 건축허가보다 5백50평을 초과 허가해 줌으로써 도청에 대한 명목상 승인을 드러내고 있다.

도민의 최고대표기관인 제주도는 「이 허가는 자신들의 소관부이고 그 내용도 몰랐다」고 발발하다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자 뒤늦게 이를 수습하느라 허둥대기 시작했고, 특히 허가 관청인 남군청은 이 사업이 큰 파문을 일으키자 원상복귀 및 건축허가철회를 권유해 그것이 「私情이나」 아니면 「權력」이라는 사회의 반목을 사고있다. 이에대해 제주도는 지난 3월15일에 환경청에서 요청한 제동목장내 훈련비행장확



▲「송이」채취현장

당국의 무분별한 송이채취가 도로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던 오름들이 원형을 잃어볼수 없게 파괴되고 있다. 사진은 제동흥산내 소록산의 송이채취 현장이다.

▶산속의 비행장

기존활주로를 제멋대로 확장해도 누구하나 항의하는 사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멋대로 하는가.

장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의견서에서 대한항공이 추진하고 있는 훈련비행장 확장 장소에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비행장시설 및 확장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훈련비행장이 확장됐을때 중간간일대의 본도 특유 자연경관과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까지 낳고있다. 또, 비행장 확장부지는 농축산업에 직접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곳이므로 공공시설 임지 승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북해주군과 남해주군에서도 제주도당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송당리 대천동, 교태리, 선출 2리 등 지역주민들의 생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독점적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위화감 조성과 비행장시설로 인한 대혈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고있다. 또한 대한항공의 훈련비행장 시설계획은 무공해 산업유치 및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이 아니라 개인자본 사업계획이 본도에 침투하도록 이 기회에 확실한 폐기를 막아 두어야 한다.

III. 생수사업

제동목장내에는 현재 연건평

1천 6백평의 거대한 생수공장이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러 내년부터는 이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수생산을 할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생산할 생수에 대한 시판허가는 아직 나지 않았지만, 이 생수를 외국상사, 관광호텔, 면세점, 항공기내 등에서 판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예정 연건생산량은 10만톤규모로 이곳을 관광코스로 정해 관광명소로 만들 예정이 라고 업자들은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제동흥산이 84년부터 착수한 생수사업은 현재 서귀포 KAL호텔 구내지하에 지하수원을 개발 하루 20톤씩 뽑아올려 대한항공 기내 사용용 음료수와 대외수출용으로 유통·반출하면서 도 원수대가 부과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지난해 생수생산량은 8천 4백톤이며 올해 목표는 1만 4백78톤, 하루 생산량은 8만병이고, 가동률은 30%인 것으로 알려졌다.

84년 8월 보사부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은 이 생수사업은 항공기내와 호텔, 외국인에게 판매하도록 되어있는데, 내국인에게도 공공연히 판매되어

도민들과의 불협화음을 내고있다.

제동흥산에서 유통·반출하는 생수종류는 3가지이며 같은 18.6짜리 1병에 3천 5백원, 1.5L짜리 12개들이 1상자에 5천 5백원, 0.5L짜리 24개들이 1박스에 7천 5백원씩이다. 지난 86아시아게임과 88올림픽 생수공급 70%이상을 차지하면서 많은 홍보효과를 올린 제동흥산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일본의 생수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우수해 이 사업이 몇년안에 1천억원의 판매고를 올릴 수 있는 지속적인 성장사업이 될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에대해 세금도 내지 않은 채 생수를 팔아먹고 있다는 제주도민들의 여론이 일어났지만 생수개발에 따른 원수대를 징수할 관계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원수대를 지불케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지않느냐는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용천수개발이 한계에 이르러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본도로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게 되어 있어 해마다 무제한적으로 호텔, 목욕탕, 관광업소 같은 개인 시설지하수 개발이

늘고 있다.

자연자원이 사적이윤추구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가운데 상수도 고갈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지방침탈현상, 삼투현상 등이 생겨날 우려를 낳고 있어 수도법의 개정과 개발 또한 제한시켜야 한다. 더구나 최근에는 생수대리점까지 설치된다는 얘기가 나돌고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심화되리라 보인다.

IV. 「송이」사업

한라산을 중심으로 중산간지역 곳곳에는 기생화산인「오름」들이 그동안 각종 건설용에 사용될 송이채취로 상당수가 파괴되고 있고 제주도내 송이가 건축자재와 도자기·고강도 특수유리원료등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조사결과 발표로 나왔다. 제동목장내의 기생화산인「소록산」도 「송이」를 채취하면서 갈아먹고 있는 오름중의 하나이다. 업자들은 송이를 채취하고 나서 조립사업 등에 사용한다고 하지만 자연경관의 파괴와 강수로 인한 토석의 흘러내림은 어떻게 방지되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제동목장측은 이런 사실에 대해 종합레저타운건설로 인한 지방취업률의 증대(현재 85%라고 함)를 도도합과 동시에 관광사업이 증대되어 도민들에게 생활할 일이라고 하지만 조성자금이 세시간이면 본사로 유출되는데 그 수입금이 과연 어디로 흘러들어 가겠는가.

또 골짜기가 들어서면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어 황무지를 개간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그 부분에 대한 고용기회도 확대되겠지만, 그것은 없는자가 있는자에게 골짜기로 머리를 맞는 격이 되어 버릴 것이다.

업자들은 올해 6월말까지 송이채취허가기간이 끝나지만 지난 8월 취재자 3명을 지나칠때도 공사가 한창이었고 송이를 실은 트럭이 오가곤 있었다.

현재 도내에 산재해 있는 3백60여개의 오름중 당국이 송이채취를 허가해 준 곳만해도 80년에서 89년까지 총68곳이나 되며 이미 이전에도 수십건이 허가되어 오름을 파헤쳐 송이를 채취했으나 대부분이 복구공사를 하지 않아 제주특별유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다.

이같이 허술하게 파헤쳐지는 오름에 대해 허가당국은 「예산관계로 복구공사는 자체수급을 인근 지역에서 조달하여 사용하느라 여러곳에 허가를 해주게 됐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같은 당국의 무분별한 허가가 오름을 파괴되고 제주전체의 자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아닐까 지적한다.

이렇듯 건설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송이」를 계속적으로 채취하면 몇년내에 도내 오름은 온전치 남아 있는게 없을 것이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관광자본으로 하는 본도로서 그 개발을 제한시켜야 한다.

V. 초현대식 레저타운 건설계획

한진그룹은 1천여억원 규모 예산을 들여 제동목장내 4백70만평에 36층 골짜기를 비

롯하여 3백~5백 객실의 호텔·사적장·경마장·디즈니랜드·노인양로원등을 설치하고, 韓·日·韓 전세여행사가 이착륙할수 있는 규모의 공항을 건설, 초현대식 레저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다.

올해말부터 기반시설공사에 착수할 이계획은 한진그룹측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정보완작업을 하고있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제출한 제동목장토지이용계획에서 밝혀졌는데, 그사업내용을 보면 총면적 1백만평규모에 전세여행사로 727기종이 이착륙할수 있는 공항시설을 갖추고 부대시설로 격납고·정비고·기숙사등을 시설하며, 50만평에 36층 규모의 골짜기를 시설해 18층은 외국인 전용 호텔, 20~40만평 규모에는 「우주여행」, 「원시사냥」, 「원형극장」, 「레드열차」 등 디즈니랜드시설을, 10만평에는 5백식규모의 외국인 전용 호텔들이 들어서게 된다. 이밖에 사적장·경마장·양로원 등이 시설하게되는데,李本부장은 한진그룹의 마지막 투자가 업이 될것지도 모른다고 한다.

제동목장측은 이런 사실에 대해 종합레저타운건설로 인한 지방취업률의 증대(현재 85%라고 함)를 도도합과 동시에 관광사업이 증대되어 도민들에게 생활할 일이라고 하지만 조성자금이 세시간이면 본사로 유출되는데 그 수입금이 과연 어디로 흘러들어 가겠는가.

또 골짜기가 들어서면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어 황무지를 개간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그 부분에 대한 고용기회도 확대되겠지만, 그것은 없는자가 있는자에게 골짜기로 머리를 맞는 격이 되어 버릴 것이다.

VI. 마치면서

이렇게 주위에서 제동목장에 대한 언성이 높아지자 지난 3월16일에 한진그룹 제주지역본부장 이용도 제동흥산 부사장은 「현재의 여건상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것이 어려운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전에 있었던 일련의 사업중단사유를 「홍보부족이었다」고 밝혀 앞으로 한진그룹에서 추진하려는 홍보내용이 어떤것인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리라 본다.

조중훈회장(?)이라 할만큼 제주도 전체면적의 1백30분의 1을 차지하는 제동목장. 개발과 보존이라는 미명하에 점점 위축되어가는 지역주민의 피해와 희생은 보상받을 길이 없는가.

축산, 공항, 생수, 판산, 레저타운건설사업들이 제주지역에 이익금환수 요구에 앞서 천혜의 자원을 보존, 이를 전제로 한 개발이 우선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고 더이상 도청에서는 재벌들이 제주에 자본 침식을 못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강덕호 기자]

본사 기획시리즈<북한사회주의의 어제와 오늘 6>북한사회주의의 경제전면>은 本紙의 지면사항으로 인해 이번호에는 게재치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註>

파고라

연구하지 않는 대학 존재 가치없다

교수들은 연구하지 않고, 학생들은 전혀 공부할 의사가 없는 대학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단언코 「그것도 대학이냐」라는 질문을 던질것이다. 그러나 실상 우리대학을 본다면 위에서 말한 모습과 무관하다고 할수 없을 것이다. 속칭 「그 선생이 그 제자」라고나 할까. 날이 갈수록 우리는 저질 대학으로의 하강길을 걷는 것 같다.

개학후, 아니 오래전부터 우리는 스스로 대학인이길 거부하고 있다. 「휴간」이라는 구실하에 교수는 단지 직업인으로서, 학생은 단지 졸업장이나 직장행 티켓을 받기 위한 돈과 시간의 낭비자로서만 존재하기를 원하는듯 하다. 개학한지한 달이 지나도록 정상강의가 이루어진 날 보다는 이 핑계, 저 핑계로 강의하지 않은 날이 많은 우리의 현실은 대학이 「지성의 전당」이 아닌 「상아탑」이 아니라는 말들을 우습게 만들고 있다.

물론 전체가 그렇거나 강의의 질이 대학의 목적이란 말은 아니다. 적어도 대부분은 강의실을 지키고 있어야 하고, 강의를 기반으로 학생들은 학문·진리의에 탐구 작업을 할 수 있고, 교수들은 심도있고 지속적인 연구로 학생들에게 10년전의 강의노력이나 교과서위하기 식의 교육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알리고 학생들의求知欲을 자극할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학과가 2학기 개학후 여덟째 46일중 16일 강의 30일 휴강(국경일 포함)이라는 비참한 현실을 경험했다. 특히나 국경일이 많은 이날에는 단대축제, 아라체전, 중간고사등이 겹쳐 겨우 4일 강의를 하는 과들도 있다.

「아라체전」공고를 보고 몇몇 학우가 「어휴! 또 놀이 우리 강의 좀 반지」라던 말이 우리의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다.

「공부하지 않는 대학」 이것이 요즘 우리 대학의 새명칭이다. 국가정책적인 우민정책의 일환으로서의 다중휴일 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에 호응하여 우리 대학에서와 같이 단대축제, 해방제, 아라체전, 아라체전이 모두 분리되어 한 주일가량씩 차지하고 M·T도 강의있는 날로만 끝나는 하는 데는 정말 돈내고 놀기 위해 들은는 대학이라는 생각밖에 들지않는다.

그렇다고해서 그 많은 시간을 군데군데 모여앉아 사회에 대한, 진리에 대한 토론을 하거나 한쪽이 책에 심취해 있거나 하는 것도 아니다. 고작 여기저기서 보이는 모습이라곤 족구, 배구등을 하거나, 더욱더 질적인 유희(속칭 팔팔이 같은...) 들을 하는것 뿐이다.

우리가 대학인으로서, 우리 대학이 진정한 대학으로서의 체모를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것들은 지켜져야 한다.

「우리 그만 놀고 강의도 받고, 시험철이 아니어도 책읽을 습성. 그리고 교수님들도 단순 직업인이 되지 마시고 연구 좀 하십시오」 [順]



“서울손주 얼마나 컸는지...”

보고픈 우리손주 무럭무럭 잘 크는지. 그냥 전화만으로는 너무 아쉬워서... TV처럼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전화기는 안나오나요?



제주도 서귀포에서 윤성이 할머니

인간과 호흡하는 첨단기술

휴먼테크와의 만남 - ② 첨단통신기기간

할머니의 그런 소원- 삼성의 휴먼테크가 실현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과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그리움을 달랠 수 있는 세상 - 인간행복을 위한 삼성의 기술정진 휴먼테크가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삼성 휴먼테크 어디까지 왔나?

가입전화 1,000만대 돌파, 전화보급률 세계 10위 등 한국의 눈부신 통신발전을 선도 해온 삼성은 교환기, 컴퓨터뿐만 아니라 각종 통신기기에 필수적인 AMD램, IMS램의 개발 등 세계가 놀라는 통신기술 역량을 아낌없이 투자했다. 또한 '89년 흑백화상 전화기개발에 이어 컬러화상전화기 연구도 착수 진행되어 인류가 꿈꾸어온 세상을 앞당겨 실현하고 있습니다.

고도정보화사회, 그곳에는 휴먼테크가 있습니다.

화상전화기 실용화를 위해서는 종합정보통신망 등, ISDN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더욱 고밀도의 반도체 집적기술, 대용량의 디지털화기기술, 광통신 그리고 위성통신기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ISDN의 필수조건인 전자직접 교환기개발에 이어 대용량의 TDX-10 개발도 눈앞에 두고 있는 삼성의 종합기술력은 고도정보화사회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도정보화사회, 그곳에는 휴먼테크가 있습니다.

휴먼테크의 목표는 「인간행복」입니다.

휴먼테크
삼성전자

한글날 특집 일본문화-그 언어의 잔재

일상 쓰이는 어휘 250여개 넘어 우리말로 고쳐쓰는 습관 있어야

강영봉
〈인문대교수·국어학〉

I. 들머리

흔히 알려진 대로 제주도는 일본어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이 언어의 잔재들은 50대 이상에서는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가 하면 젊은층에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일본어인지도 모르면서 사용되기도 한다. 셈을 할 때 자연 발생적으로 '어찌·니...'가 튀어 나오거나 하면, 찾점에 가서도 스스럼없이 '시보리(물수건)'를 찾고 '오짜'나 '고이'를 시키기도 한다. '벤토'를 사달라고 응석을 부리는가 하면, '와리바시'가 없었다고 짜증을 피우기도 한다.

대학생들의 하교길에서 엿듣는 이야기를 옮겨보자. 『어제 당구를 쳤다면서?』 『그래, 그 친구 말이야. 이젠 '오시'도 치고 많이 는 것 같거든.』 『우리 모르게 많이 친 것 같지만 끝내 '가리쿠'에서 틀렸지?』 『나미! 실력은 어때?』 『이제 '나미'는 문제가 아니고 왕코, 투코, 쓰코도 제법이야!』 이 정도는 남대생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다.

아무리 <언어가 사회의 반영>이라고 하지만 일상생활 언어생활이 이 정도이고 보면 매년 맞이하는 <한글날>이 무색해진다.

좋은 우리말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낱 사전에 올리기 위한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사전을 찾으면서도 아름답고 질박한

우리말을 살려쓰려는 세심한 배려가 아니다. 이 글은 청탁자의 의도에 따라 우리말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일본어의 잔재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세세한 언어학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어휘만을 다루기로 하며, 그 지역도 제주도에만 한정하기로 한다.

II. 사용되는 어휘들

일본어의 잔재는 특수 분야 즉 인쇄업, 건축업 등에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선할 어휘들은 많이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어휘도 출잡이 2백 50개 어휘는 넘으리라고 본다. 중요한 어휘들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주의할 일은 모르고 있던 어휘를 살펴쓰자는 의도가 아니라라는 것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표 뒤에 있는 어휘로 바꿔 사용했으면 한다.

가라쿠→쿠션놀리기/가리방→출판/가미소리→면도기/가쿠→물(액자)/가쿠부치→물(액자)/가미→거울/가쿠→반대치기/가라구미→애벌짜기/가라구미→교정쇄/전송→원치수/고부→닷봉/구치→입/가미도메→통기서류/간쓰메→통조림/가라롱→무의 있는 옷/가라스→유리/고메→머리지집/곤조→심보/고마카시→눈썹/고부→립/구치→빗/구르마→수레/나카오리→종종모/나라비→출세기/나카마→동아리/네지→나사/노가다→노동자/네쿠다이→네티/넝와→전화/노리→김/노리가이→갈아타기/난닝구→런닝셔츠/다다미→매트리스/다마→공/다람→단무지/다삭

→ 많이/다마네기→양파/다시→양념/다노무시→계/다라→큰대야/델루라→튀김/도랑→합석/도마부→점심/도나리→이웃/데모토→조수/넛티리→적중/도비라→속표지/돌부리→덮밥/레지오→라디오/핑가→벽돌/다쓰리→라치/마키→말이/마와시→틀리기/머구리→잡수부/모도시→되돌리기/모리소바→메밀사리/모찌→떡/미강→글/메가네→안경/미싱→재봉틀/뽀뽀→통바지/모파나→아자파/마카리→참외/바케쓰→양동이/벤조→변소/베나다→합판/비루→맥주/비가→편직/스메끼리→손목깁기/스게→종다/소로방→주산/수시→초밥/스트메→오징어포/사시미→생선/사시미→꽃이/세누키→따개/센바→선반/아카자기→머리류/아마구루→비신/아싸리→깨끗이/아쓰이→덥다/이카→오징어/이루쿠→멜기/이빠이→가죽/이타바→요리사/야스몽→싸구리/요코제기→새치기/와리바시→나루짓가라/우동→국수/우게→쥬브/우와기→꽃/와리랑→나누기/젠자이→단팔죽/즈봉→바지/카빠→알개/카이담→총채/칸조→사선/첸세이→전선/쿠사리→면박

이상 빈번하게 쓰인다고 여겨지는 어휘 1백여개를 나열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음에 이상이 있는 것도 있었지만 원래 어휘라고 그리 멀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III. 개선 방안

어떻게 하면 일본어의 잔재를 없앨 것인가. 첫째, 외래어를 먼저 알고, 우리말로 고쳐 쓰는 습관이 있

어야 할 것이다. →표 뒤에 바뀐 좋은 우리말들을 표기해 두었다. 꼭 알맞는 대역인지는 모르지만 본문을 가까이에서 봤다면 그리 써도 좋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외국어공부에 힘을 일이다. 둘째, 사전 찾는 일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아는 길도 물어가듯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 뜻을 쉽게 파악되지 않는 것은 없다. 영어나 다른 외국어사전도 찾아본다. 근래에는 우리말 분류사전, 예를들면 박용수씨의 <우리말 갈래사전>

남영신씨의 <우리말 분류사전(상)(하)>도 출간되어 어느 분야, 어떤 속성 등으로 순수한 우리말들이 엮여져 나왔다. 글을 쓴다거나 연구에, 나아가 어휘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하리라 본다.

셋째, 주체의식을 갖고 우리말 애용에 노력해야 한다. 외래어라고 해서 외래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화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귀화어로 만들면 될 일이다. 특히 개방화정책에 따른 제주도의 입장을 굳건하게 견지하는 일도 여기에 포함된다.

개신간

「무엇을 할 것인가」

니콜라이체르니세프스키著 소설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제2차 세계 대전의 격렬한 전선의 한 장면으로 니콜라이 체르니세프스키의 대표작으로 당시의 혁명세력은 물론 반혁명세력을까지 집약적으로 다루어내면서 사회주의 러시아 전



설을 위한 방향타 역할을 한 러시아 혁명가들의 생활상의 교과서였던 불후의 명작이다. 이 작품은 발표되자마자 러시아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 그들은 이소설을 혁명적 민주주의자가 옥중에서

보낸 유언처럼 여겼으며 그가 곁을 떠나기 위해 사용한 암시적 수법이나 열렬적인 묘사를 이해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탐독하기도 했다. 그들은 소설속 주인공들의 삶의 방식을 모범의 전철로 삼았으며, 주인공들의 삶 속에서 자신을 내면시키는 것을 생활의 목표로 삼기도 했다.

소설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저자가 망명중인 게르첸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1862년 체포된 뒤 「피터 앤드 폴 포트레트」 형무소에서 미칠수로 있을 때 쓴 작품이다.

<남중·상하·각권 3권5백원>

「작가세계」

—김지하 특집



작가를 집중탐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학잡지인 「작가세계」 '89년 가을호가 나왔다. 이번호는 「오월」 등으로 우리에 많이 알려진 김지하의 삶과 문학, 사상을 특징으로 담고 있다. 특히 그의 작품을 비롯해 홍정선씨의 연구자료 「김지하 연구의 현주파」와 「고향의 문화·귀향의 문화」 등의 논문과 시, 윤희영씨의 소설 「약속없는 세대」와 소설 1편, 서평들이 실려 있다.

<세계사·3권 8백원>

한반도, 兩極 冷戰체제 희생물

「세계정치질서와 소련의 새로운 접근」
박자조청세미나
정치질서에 대한 소련의 새로운 접근
제주대학교



이 글은 세르게이 로고프박사(소련과학원아카데미 미-캐나다연구소 군사안보실장)와 알렉산더 나고르니 박사(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특강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원정자주】

세계는 지금까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되어 냉전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런 냉전체제에서 비롯된 결과중의 하나가 한반도 분단이며 대개 이런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갈등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기에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이데올로기, 즉 이념문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념문제는 소위 선과 악, 그리고 적과 아군(동지)의 개념을 분명히 설명하면서 세계를 갈라놓았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세계는 지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념문제는 특히 군비를 강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미국이나 소련의 핵무기 보유량이라든가 세계에서 핵무기가 가지는 위함성에 대해서는 여러번이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은 무려 2백여만, 소련의 경우는 약 4백여만의 군대를 보유하고 여기에 따른 군사비 지출은 막대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미-소가 서로 상대방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소 이외의 타국의 파괴와 파멸을 부르고 전쟁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미-소 또는 국제정치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데올로기에 의한 세계정치체제의 실상이다.

그러나 지금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페레스트로이카는 하나의 사회주의의 가능성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련사회내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1917년 러시아혁명에서 달성하지 못한 것을 이루려는 새로운 도하의 혁명의 시도이다. 즉, 정부에 모든 생산수단이 속해있던 예전과는 달리 정부와 국민, 국민과 국민으로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정치적·경제적인 개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얼마전에 있었던 중앙위원회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 대한 지지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보수주의정책을 주장했던 사람이 결정된 사실에도 잘 나타난다.

페레스트로이카는 특히 외교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냉전에 의한 양극체제를 점차 완화시키면서 세계적인 정치구조에 대한 새로운 사안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이다. 예를들면 소련과 동구, 소련과 서구, 소련과 기타 국가와의 관계가 여러가지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상호과파 또는 세계의 파멸을 방지하고 평화공존을 의미하는 외교정책이다.

또한 지금까지 미-소가 지배하고 있던 군

비경쟁에 의해서는 서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몇가지 역사적인 사례를 가지고 입증하고 있다. 페바는, 중동, 팔레스타인, 캄보디아 등에서 군사적으로 어느 일방이 이기지 못한 것을 교훈으로 남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협력은 어떤 일방적인 관계에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신뢰의 구축에 이를 수 있다. 고르바초프가 주장한 소련군의 감축이나 소련내에서의 전략무기감축은 소련의 일방적인 감축이 아니라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감축을 뜻한다.

소련은 결코 미국이나 타국으로 부터의 우수성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세계속의 소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페레스트로이카의 근본적인 하나의 골자다.

이런것은 유럽 등 여러지역에서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태평양지역에서도 심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의 세계정세를 보아 냉전이 끝났다는 가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은 과도기 상태다. 지금까지 냉전체제에서 지속된 경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는 양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하고 있고 각국은 그들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이를 통한 과도기 체제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달려있고 이것은 한반도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페레스트로이카는 이와같은 과도기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인 두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소련내에 대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회주의국가를 변화시키는 문제로서의 역할이고, 또다른 하나는 소련의 주도하에 한반도와 같은 지역안보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이다. 결국 남북대화를 유도하는데 있어서도 기여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헝가리, 루마니아 같은 예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에 있어서 소련과의 협력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특히 미국·중국·일본·북한·한국과 소련과의 상호대화는 한국문제 해결에, 나아가서 태평양지역과 세계정치의 질서형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한국과 소련과의 관계를 앞으로 더이상 진지하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소련에서 한국이 양분된 상태에서 현상유지하는 것을 결코 원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제주도를 방문한 첫 소련시민이자 학자로서 우리가 마지막 방문객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정리: 김지하 記者】



○...아닌 밤중에 홍두깨
7시가 넘은 토요일 저녁, 밤의 정적을 깨는 요란한 음악소리가 들려 그 근원지를 찾아본다.

다들 아니라 몇명의 무리가 화성회관 옥상에서 춤을 벌인 것인데 옥상이 어드레 디스코텍으로 변했다 착각이 들 정도.

한단 한단 하니 정말 너무 하시는 아라화형님네! 저능아나 할 만한 이런 작태를 행하는 여러분은 대체 어느집안 자손이요?

○...부실공사는 이제 그만
『화장실 천정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빛을 화장실에서 떨어지는 물이라는 생각이 붙잡히기도 하고 또한 물이 옷에 떨어질까 피해야하는 불편도 있어 피도독 1층을 피해 2, 3층 화장실을 사용하는 실정입니다만 정말 화가

납니다! 라는 불만이 가득차 있는 9층 1층 여자 화장실.

다무기 완공된 지 한 달 밖에 안된 신축교사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로 충격은 더욱 증폭.

30여차례 건물이 화장실 하나 변변치 못해서야 어디 부실공사라는 의혹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제2의 살인극
요즘처럼 덥지않아 대학생 번사자신이

강의실의 장터화
발생하는 하 수상한 시절에 다시 대학생에게 사람이 구형됐다가 아라가 가슴이 심복 하였던.

○...강의실이 장터로 변한 강의실의 이목
을 끌면서 빈축을 샀는데.

알아본즉, 사회과학에서 축제기간동안 전교조 기금마련 한다는 취지아래 강의실에서 장터를 열었지만, 시끄러움만 아니라 타파강의에 피해를 주고 건물전체에 기동내세를 풍기게 한것.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지만 강의실은 공부할 하기위한곳. 행하기에 앞서 지성인답게 깊은 사고가 있어야 할 것 같소.

○...이러면 안돼!
사범대에서 참교육을 전교조까지 홍보용으로 사용하고있는 것발발이 진입로에 나무끼고 있는데.

그 실상을 살펴보니, 가로수마다 조각난 깃발 몇개가 달랑 달려있거나 아니면 긴 대나무대만이나 축 쳐진채로 매달려있어 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밤에 하교할때는 위험성마저 조장.

이에 아라구 한마디, 홍보를 위해 만든 것이면 자신들이 주장하고픈 것을 완전하게 나타내려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손상된 홍보물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은 이미 홍보효과를 기대하지않는다는 것이 아니요.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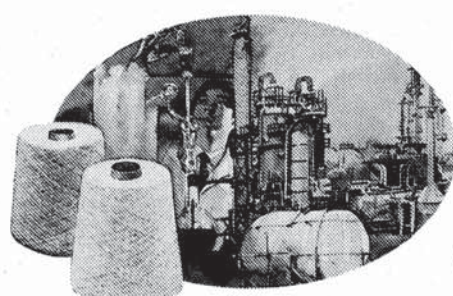
이 어찌시는지.

이 어찌시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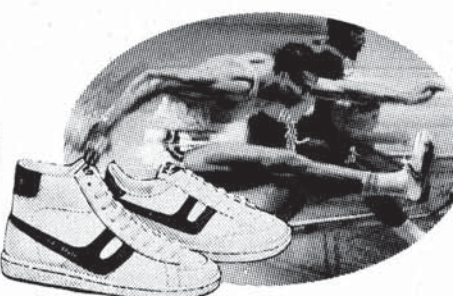


한울의 실에서 첨단반도체까지— 韓一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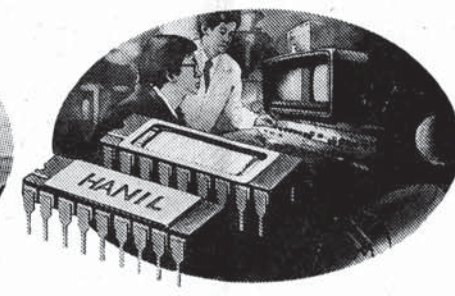
한일그룹은 섬유산업을 필두로 신발, 석유화학, 비료, 건설, 금융, 관광, 레저, 서비스산업, 첨단반도체 전자, 생명공학등 산업 각 분야에서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섬유 화학을 통해 생활을 풍요롭게
세계 최대의 아크릴 생산을 자랑하는 한일합섬. 고급복지 전문에이커 강남모직을 통해 세계 속에 섬유한국을 심어온 한일그룹. 이렇듯 섬유·도전섬유 등을 개발하여 화학섬유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한일그룹은 신소재섬유, 고분자재료, 정밀화학분야에도 적극 참여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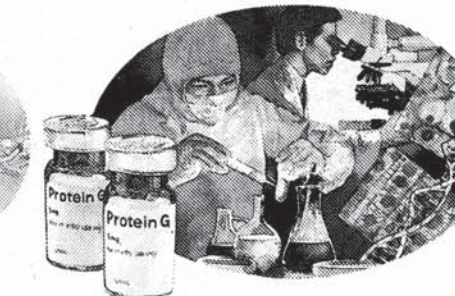
스포츠를 통해 생활을 활기치게
스포츠재료를 과학연구센터를 운영하여 품격있는 소재개발에 앞장선 한일그룹. 한일그룹은 스포츠과학을 통한 건강한 생활문화창조에 기여해온 한국의 상류 프로세스는 구미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수출되어 한국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첨단 전자기술을 통해 생활을 편리하게
「연구개발(R & D) 센터」의 설립을 통해 21세기 기술집약산업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한일그룹. 한일그룹은 국제적으로도 초기기술단계에 있는 갈륨비소(GaAs) 반도체 및 광통신소재 생산을 추진. 특히 갈륨비소는 '90년 초 국내최초의 시생산단계에 있습니다. 또 통신전자제품의 국산화율을 높여 고도 정보화시대의 생활리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레조트를 통해 생활을 즐겁게
각종 스포츠 시설과 문화시설 및 휴양시설을 제공하는 관광호텔산업. 레조트산업으로 즐겁고 유쾌한 국민생활에 기여해온 한일그룹. 하얏트리젠스 레조트와 부설 동도컨트리클럽, 한일레조트센터, 동방레지타운 등은 국내 최고의 연례관광코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을 통해 생활을 건강하게
첨단 실험시설과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 생명의 비밀을 밝히고 그 연구와 응용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한일그룹. 한일그룹은 기초화학에서부터 고분도 정밀화학에 이르기까지 화학분야에의 연구를 더욱 넓혀 생명의 신비를 밝혀줄 생명공학의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한일합섬 ● 국제상사 ● 경남모직 ● 동서석유화학 ● 부국증권 ● 하얏트리젠스-제주 ● 하얏트리젠스-부산 ● 진해화학 ● 동도컨트리클럽 ● 한호개발 ● 한호건설 ● 연합물산 ● 동방호신개발 ● 한호재단

韓一그룹